

다이오드를 이용한 이중대역 주파수 혼합기 설계에 관한 연구

김 종 화, 강 석 엽, 고 민 호, 박 효 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A Study on the Design of a dual-band Mixer by An Anti-parallel diode

Jonghwa Kim, Sukyoub Kang, Minho Go, Hyodal Park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Inh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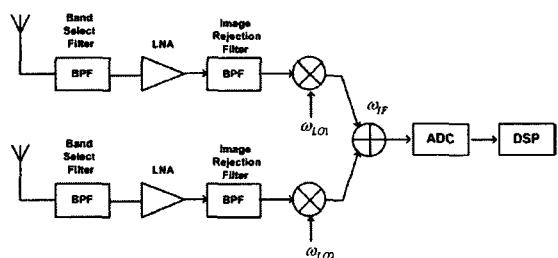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발진기를 사용하여 두 대역의 주파수 혼합기(Mixer)를 설계하였다. 기존의 혼합기는 두 주파수 대역을 혼합하기 위해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발진기가 필요하였으나 본 논문은 하나의 주파수 발진기를 사용하여 두 대역의 중간주파수 변환이 가능하다. 혼합기 설계를 위해서 Anti-parallel diode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바이어스를 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조파 혼합기로 동작을 하고,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는 기본 주파수 혼합기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혼합기의 등용을 위해 무선 LAN에 주파수 대역인 801.11b(2400 MHz)과 801.11a(5250 MHz)에 이중 대역 혼합기를 설계하였으며, 하나의 발진 주파수(2230 MHz)를 혼합하여 326MHz에서는 변환손실이 -10.7dBm를 갖도록 789 MHz에서는 변환손실을 -12.6dBm를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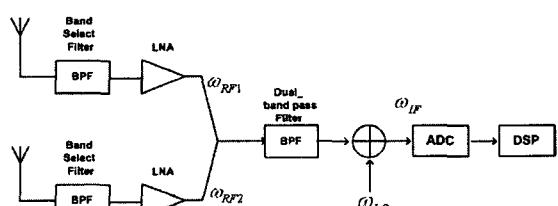
I. 서 론

최근 들어 인터넷과 노트북, 그리고 휴대용 이동 통신 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일반 컴퓨팅 환경에서보다 편리한 이동성과 원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유선 선로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이동이 잣은 업무 환경에서 구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무선 LAN 기술은 IEEE 802.11b 계열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고속 전송률을 위한 IEEE 802.11a 계열의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계열이 혼합대역 처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두 대역의 주파수 사용을 위해 바이어스 전압을 이용한 혼합기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이중 대역을 사용하는 RF-front-end 단은 두개의 RF 주파수를 각각의 LO주파수로 혼합하여 하나의 IF주파수로 변조하여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회로가 복잡하고 단자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근 두 대역을 하나의 LNA로 통합한 이중 대역 증폭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1][2]. 본 논문의 혼합기(Mixer)는 [그림1]과 같이 이중대역 막서로 하나의 발진 주파수를 이용하여 두 대역의 RF주파수에 대한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anti-parallel diode의 특성을 이용하여 낮은 발진 주파수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잡음특성이 우수하며 변환손실이 작다[1][2][5][6].



(a) 두개의 대역을 사용하는 기존 RF-front-end의 구조



(b) 두개의 대역을 사용하는 제안된 RF-front-end의 구조

[그림1] 이중대역의 RF-front-end의 구조